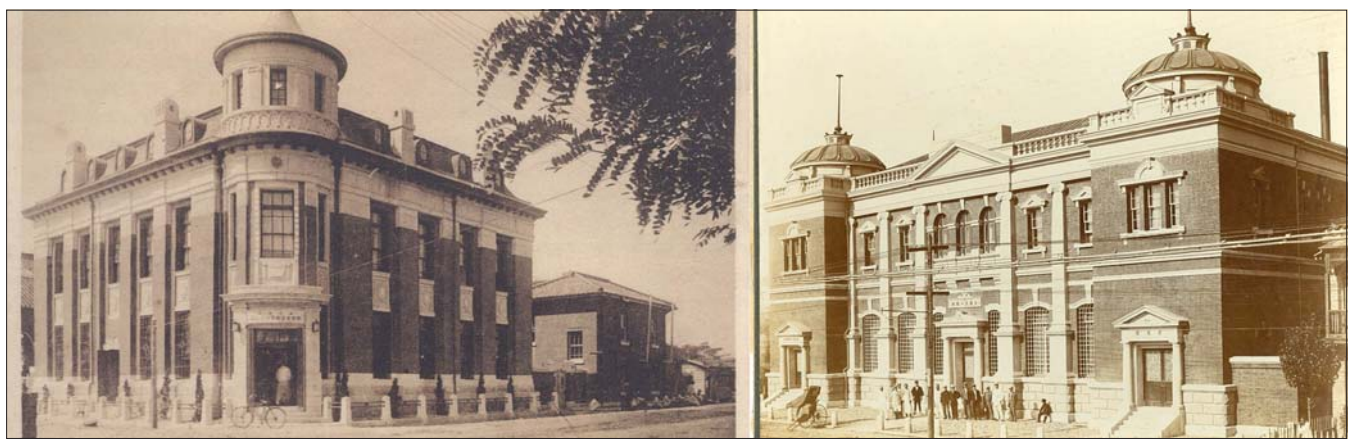
'대한천일은행'에서 '우리금융지주' 전환까지

日 맞서 탄생한 민족은행… M&A·디지털로 세계화 시동

우리은행

120주년 맞은 우리은행

100년 미래 설계… 신남방 공략 속도
비은행 M&A 시장 진출로 영향 확대



(왼쪽부터) 1899년 개점한 대한천일은행 인천지점과 1909년 개점한 대한천일은행 종로지점. /우리은행

'본 은행 지점을 본월 10일 인천항 탁포(坼浦)에 창설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여러분께서는 부환(付換·입금)과 출환(出換·출금)에 관한 일이 있으시면 오셔서 문의하기 바랍니다.'(1899년 5월10일 대한천일은행(현 우리은행) 인천지점 개점 광고)

강화도 조약이 체결된 1876년 이후 서울 청계천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한국 상인들은 일본계 자본 등쌀에 허리 한번 펴지 못했다. 제대로 된 은행 점포 하나 없다 보니 외자의 횡포에 목소리 한번 내지 못했고, 주머니 속 동전까지 털려야 했다.

지켜보다 못한 지식인을 중심으로 만든 것이 한국 첫 금융기관인 '대한천일은행(현 우리은행)'이다.

이 후 조선상업은행, 한빛은행으로 간판을 고쳐 달다 지금의 우리은행(2002년)으로 이름을 바꿔 달았다. 끊이없는 노력과 서민들 사랑 속에 조선 반도의 작은 은행에 머물지 않았다. 지난해 금융전문지 더 뱅커(The Banker)가 주최하는 '더 뱅커 어워드 2018(The Banker Awards 2018)'에서 '한국 최우수은행(Bank of the Year South Korea)'으로 선정됐다. 현재 국내 878개의 지점 및 출장소와 해외 441개의 네트워크를 두고 세계적인 은행으로 비상하고 있다.

120년 전통의 우리은행은 다시한번 100년 미래를 설계하고 있다. 금융지주로 조직에 변화를 주며, 중국·일본·동남아를 넘어 신남방행(行)에 속도를 내고 있다.

손태승 우리금융회장 겸 우리은행장은 "지주사 전환을 발판 삼아 최고의 금융그룹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며 "올 한해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앞으로 10년, 20년 후가 달라질 것"이라며 올해 경영목표를 '120년 고객동행, 위대한 은행 도약'으로 선언했다.

우리금융이 공격적인 인수합병(M&A)과 디지털금융전략 등을 통해 그려 나갈 새로운 미래에 금융권이 주목하고 있다.

◆대한천일은행에서 우리금융지주 전환까지… 격동의 '120주년'

"화폐융통(貨幣融通)은 상무흥왕(商務興旺)의 본(本)이라."

1899년 1월 30일 우리은행은 고종황제의 윤허를 받아 '화폐가 원활하게 유통되는 것은 상업이 흥하고 왕성하게 되는 것의 근본이다'라는 창립정신으로 설립됐다. 백성과 나라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하늘 아래 첫째가는 은행'인 대한천일은행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민족자본으로 설립된 우리은행은 일제강점기 동안 일본 금융에 맞서 화폐와 재정 제도의 안정을 도모했다. 정부에서 주관한 전당포 규칙에 따라 부동산저당대출을 실시해 일본계를 비롯한 외국계 은행들이 국토에 관한 권리를 악용하는 것을 막기도 했다.

해방 이후, 6.25전쟁이라는 또 다른 혼란을 맞은 국내 정세 속에서 우리은행은 고객에게 피난 자금을 제공함으로써 금융위기를 극복하고자 노력했다. 이어 1950년대 후반에는 새로운 도약을 위해 해외로부터 금융업무 및 사무기기를 선도적으로 도입해 은행업무의 효율성을 높였다.

1960년대 우리은행은 경공업을 육성하자는 국가 시책에 부응하고자 중소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금융지원을 시행해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 금융시장의 개방으로 국제 금융업무가 확대됨에 따라 은행 산업의 국제화·금융기술의 선진화를 주도했다. 이어 1990년대에는 꾸준한 자산건전성 개선과 더불어 디지털 혁신과 글로벌 성장 전략을 추진해 성공적인 민영화를 달성했다.

2016년부터 영국의 더뱅커(The Banker)지에서 3년 연속 최우수은행상을 수상한 우리은행은 지난 1월 우리금융지주의 공식 출범을 계기로 국내 최고 금융그룹으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M&A '큰 손'으로 1등 지주 원년 만든다

우리금융은 향후 금융 포트폴리오 확장을 통해 그룹의 영향력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비은행 부문의 M&A 시장 진출이 우리금융의 주요한 성장 전략으로 떠오르고 있다.

우리금융지주는 지난 6일 이사회를 열고 2018년 회계연도 결산배당으로 보통주 1주당 650원의 현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배당금 총액은 4376억원으로 지난 2017년 배당금 총액보다는 336억원 늘었으나, 배당성향은 21.5%로 5.2%포인트 줄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우리금융의 저배당 정책 결정에 대해 향후 M&A용 실탄을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보고 있다.

우리금융의 지주사 전환으로 BIS(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이 10% 초반대로 하락해, 배당을 확대할 경우 BIS비율의 추가 하락 위험이 있어 비은행 부문 M&A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것.

김인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이에 대해 "우리금융은 지난해 순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주사 전환에 따른 자본비율의 일시적 하락과 M&A 재원의 필요성 때문에 배당금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확대됐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14일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이 신년사를 통해 "비은행 금융계열사를 발 빠르게 인수합병해 2~3년 내 1등 금융그룹으로 올라서겠다"고 밝힌 포부가 향후 어떻게 전개될 수 있을 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우리금융지주가 인수전에 참여한 자산운용사는 동양자산운용과 ABL글로벌자산운용(구 알리안츠자산운용), 하이자산운용이다. 우리금융이 중형 자산운용사인 이들을 인수할 경우 현재 98%에 달하는 그룹의 은행 의존도를 줄이고 금융기관으로서의 덩치를 키울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에 대해 "아직은 아무것도 확정된 것이 없으나, 우량한 매물들을 꾸준히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홍민영 기자 hong93@metroseoul.co.kr

6년만에 다시 '웅진코웨이'… '3부자 경영행보' 관심

woongjin

2세 경영 본격화 조짐… 합류 박차
코웨이 품고 '매출 3조' 목표 귀추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이 지난해 10월말 서울 종로에 있는 본사에서 코웨이 인수를 알리는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윤형덕

윤새봄

'웅진+코웨이'의 꿈을 이룬 웅진그룹 3부자의 향후 경영 행보에 재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때 30대 그룹 반열에 올라설 정도로 큰 회사를 일궜던 창업 1세대인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에 이어 두 아들인 윤형덕, 윤새봄씨가 그룹의 모태인 웅진싱크빅과 이달 말 완전체가 될 웅진코웨이를 중심으로 경영 전반에 나설 채비를 갖추는 등 2세 경영이 본격화될 조짐을 보이면서다.

주요 그룹을 중심으로 이미 3세 경영이 시작된 재계에선 정보통신(IT)이나 바이오 등 일부 분야를 빼고는 자수성가한 창업주가 이끌고 있는 기업을 찾기가 쉽지 않다. 특히 제조 분야는 더욱 그렇다.

책 외판원으로서 그룹을 키워 한 때 재계 30위권으로 성장시켰다 유동성 위기로 코웨이를 떠나보낸 후 다시 품에 안은 윤 회장의 집념과 사업수완, 그리고 회사의 부침을 지켜보며 조용히 경영수업을 해온 '젊은 피' 두 아들의 콜라보레이션이 어떻게 펼쳐질지가 관심인 셈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코웨이는 오는 21일 충남 공주 본사에서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윤 회장의 차남인 윤새봄씨를 등기이사로 선임할 계획이다.

윤 회장이 직접 기자회견을 자청, 지난해 10월 인수를 공식화했던 코웨이가 이달 22일부터 '웅진코웨이'로 재탄생하는 데 따른 것이다.

웅진그룹이 2013년 그룹 위기 당시 MBK파트너스에 '효자 계열사'였던 코웨이를 매각한 뒤 다시 사들이겠다고 베팅한 액수는 1조6850억원이었다.

그 후 윤 회장은 보란듯이 인수금액을 훌쩍 넘는 2조원 조달에 성공하며 시장의 우려를 일시에 날려버렸다.

자체적으로 4000억원, 재무적투자자(FI)인 스틱인베스트먼트가 5000억원, 코웨이 주식을 담보로 금융권인 한국투자증권을 통해 1조1000억원을 거뜬히 마련하면서다.

웅진은 2조원 가운데 실제 코웨이 인수에 쓴 1조6832억원을 제외한 3200억원 가량은 향후 코웨이 지분 추가 인수에 사용할 계획이다. 윤 회장도 지난해 기자회견 당시 코웨이 인수 후에도 지분을 더 확보해 경영권을 안정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웅진그룹은 코웨이를 떠나보낸 뒤 꼭 6년 2개월만에 다시 품에 안고 '웅진코웨이'를 통해 추가 성장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게됐다.

앞서 웅진이 한 설문조사기관에 의뢰해 20대 이상 성인남녀 11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1%는 웅진과 코웨이를 같은 회사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년 넘게 다른 길을 갈 수 밖에 없었던 두 회사를 '한집안'으로 인식할 정도로 웅진코웨이가 시장에 뿌리깊게 박혀 있었던 것이다.

앞서 그룹은 2016년 10월부터 코웨이를 이끌고 있는 현 이해선 대표이사도 연임시키기로 결정했다. 코웨이는 지난해 2조7073억원 매출액과 5198억원 영업이익을 거두며 사상 최대 경영실적을 기록했다.

코웨이는 지난 7일 열린 기업설명회(IR)에서 올해엔 매출이 10% 늘어난 2조9780억원, 영업이익은 6% 증가한 5510억원을 목표로 내세우기도 했다.

이 대표가 연임하고 윤 회장의 차남인 새봄씨가 코웨이 등기이사에 이름을 새로 올리게 됨에 따라 간판을 바꿔달 웅진코웨이가 올해 '매출 3조원'을 향해 순항할 수 있을지도 귀추가 주목된다.

다만 현재 그룹에서 사업운영총괄을 맡고 있는 새봄씨에게 당장 주어질 직함은 없다.

그룹 관계자는 "등기이사이긴 하지만 비상근이사로 (코웨이에서)특별한 직책은 없다"면서 "당초대로 그룹에서 사업운영 전반을 담당하면서 코웨이 등기기사로 주어진 역할만 하게 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김승호 기자 bada@

》1면 '힘 있는 사외이사…'서 계속

사외이사제 '거수기' 오명 여전

주주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거나 전문성을 갖춘 인사를 영입하는 기업들도 하나 둘 생겨나고 있다.

삼성전자는 김한조 하나금융 나눔재단 이사장과 안규리 서울대 의대 교수를 사외이사로 영입한다. 사내에서는 안 교수가 보건·환경안전부터 사회공헌까지 기업 경영의 ESG(환경·사회책임·지배구조) 분야에 객관적인 조언을 해줄 것이란 기대감이 크다. 현재 서울대 사회공헌교수협의회 회장과 사단법인 생명잇기 이사장, 사단법인 라파엘인터내셔널 이사장 등을 맡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 무료진료 등의 사회공헌 활동을 해왔고, 이를 인정받으며 앞서 2017년에는 사회봉사상 부문으로 호암상을 받기도 했다.

현대차그룹은 주주추천제를 처음으로 도입해 세계적 금융 전문가인 윤치원 UBS 그룹 자산관리부문 부회장을 선임할 예정이다. 이사회의 투명성과 독립성을 끌어올리고 주주들과 적극 소통하려는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SK그룹은 최태원 회장이 지주사인 SK㈜ 이사회 의장직에서 물러나기로 결정한 가운데 사외이사인 염재호 고려대 총장을 후임자로 내정해 주목받고 있다. 국내 10대 그룹 중 사외이사에게 이사회 의장을 맡기는 것은 SK그룹이 처음이다. /손엄지 기자